담뇨척수염 (A.E)의

감인식

(프리나코리아 기술부장)

일명 유행성 진진중 (Epidemic Tremer)라고도 하며, 바이러스에 의한 부화후 1~3주경의 초생추에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이다.

초생추에 있어서는 신경중상에 의한 다리근육 조절마비로 영명이를 방해 해고나지 않아 머리, 목, 다리 등의 진전 (듦힘)이 특징이며, 다른 질병과 구별할 때는 변아리 또는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목위 또는 다리부위의 손상이 바탕에 달리듯 구멍을 드는데 많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 질병은 계절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주로 1월~6월의 육수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초생추에는 이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나 성체에서의 감염은 불확실해 의심적인 증세는 전부 느낄 수 없으며, 다만 산란율이 20~30% 가량 2~3주간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1~3주내에 회복되는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산란기에서는 이 병의 증상과 축사한 질병이 있는 것으로 평택의 모 중점장에서 최초의 보고가 있었으며 증상과 세로균의 병사 A.E로 확증을 얻었으나 원인병역 분리에 의한 확 인이 되지 않아 당시에는 백신의 수입과 접종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국내 3개 약품회사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A.E백신은 전체중개의 20%이지만 일반 실용주의 A.E에 대한 면역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개당용 병아리에도 A.E백신을 하는데 국내 부화업자들이 보유하는 중개는 80% 이상이 A.E에 대한 면역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A.E에 대한 피해는 감수수를 증대되어서 우려가 있다.


(수입된 A.E백신의 가격은 수당 15원 음수용백신으로 접종시기는 90~120일 형 임.)

(78. 4. 10 투리나프로그램 기술회보중에서)